

학생들의 토의로 진행되는 수업을 참관하는 교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교사가 정리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지막 정리도 학생에게 말하도록 해야 한다. 답을 확인하는 말들이 어느 정도 오고 간 다음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사: 모두 동의합니까?

학생들: 예.

교사: 그러면 마지막으로 00이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총정리해서 말해 줄래? 친구들은 이제 최종 답이니까 00이 말을 받아적을 준비하세요.

00이가 수업에 잘 참여했으면 쉽게 말할 것이고 수업을 잘 이해 못했으면 더듬거릴 것이다. 교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00이가 포기하면 교사가 할 말은 다음과 같다.

“누가 대신 좀 말해 줄래?”

그리고 대신 말한 학생의 말이 끝나면 꼭 00이에게 되물어야 한다.

“00아, 들었지? 이제 다시 친구들에게 최종 답을 말해 줘.”

학생들이 모두 틀린 답을 말했고, 그것을 듣는 친구들도 틀린 부분을 찾지 못하고 모두 틀린 답에 동의한 경우는 어떨까? 교사가 생각의 방향을 돌려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도 있지만, 틀리면 틀린 대로 합의하고 넘어가도 된다. 학급 전체가 기껏 토의해서 동의한 내용이 교사의 한 마디에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 버리면 학생들이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틀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교사가 그 부분만 시험에 안 내면 그만이다. 학생들은 학원에서 복습하거나 다른 반에도 친구가 있기 때문이 서로 답을 비교해 보면 안 맞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학생이 수업 중에 ‘왜 다른 반과 답이 다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면 그때 다시 토의를 통해 바로잡으면 된다.

학생이 질문을 할 때, 교사는 답을 곧바로 말해주지 않고, 소크라테스식으로 탐구하도록 되돌려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화를 이끄는 ‘형식’은 탐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사고의 방식은 ‘연역적 사고’ 즉, 대전제로부터 현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문법 탐구의 대전제는 바로 문법의 이론, 정확한 개념, 형태, 체계인 것이다.

학생: 이거 어떤 절로 안긴 거예요?

교사: 뭘 거 같아?

학생: 부사절로 안긴 문장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교사: 부사절이 뭐지?

학생: 부사어처럼 쓰이는 거요.

교사: 뭘 보면 알 수 있지?

학생: -이, -도록, -게.

교사: 이 문장에는 있어 없어?

학생: 없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 틀렸어.’에서 ‘내가 보기에’가 부사어처럼 쓰이는 거 아니에요?

교사: 음.. 일단 ‘에’는 뭐야?

학생: 조사요

교사: 조사 앞에는 뭐가 붙지?

학생: 명사요. 체언이나.

교사: 그럼 ‘-에’ 앞에 ‘내가 보기’가 붙었으니까 ‘내가 보기’는 무슨 사야?

학생: 명사요. 그럼 이거 명사절이에요?

교사: 명사절이 뭔데?

학생: 명사처럼 쓰이는 거요.

교사: 뭘 보면 알 수 있지?

학생: -음, -기.

교사: 여기 음, 기 있어 없어?

학생: 보-기 있네요.

교사: 그럼 무슨 절이야.

학생: 명사절이네요. 고맙습니다.